

'2025 화순적벽 버스투어, 23일부터 본격 운영 시작!

물염적벽부터 노루목적벽까지, 화순의 절경을 만나는 특별한 여정

4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 셔틀·투어 버스 2가지 형식 운영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구종천)은 남도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화순적벽' 일원을 여행할 수 있는 '2025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오는 4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순적벽은 동북면 상류 약 7km 구간에 걸쳐 형성된 절벽 지형으로, 물염적벽, 장랑적벽, 보산적벽, 장항적벽(노루목 적벽) 등 네 곳의 주요 적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519년 기묘사화로 유배 온 신재 최산수가 이곳의 풍광에 감탄하여 중국의 적벽보다 아름답다 하여 '적벽'이라 이름 지었다는 역사적 배경도 함께 품고 있다. 화순적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방문객들은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 구역 외 출입은 금지된다.

2025년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셔틀버스'와 '투어버스' 두 가지 형식으로 운영된다.

■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화순적벽 셔틀버스'

화,목,금,토,일 운영으로 매주 월·수 휴무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 화순적벽 셔틀버스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월·화 휴무) 운영한다.

대표 및 탑승 장소는 ▲화순온천 주차장 ▲이서커뮤니티센터 ▲적벽초소 입구 세 곳이며, 각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1일 최대 7회까지 운행된다.

요금은 탑승지점에 따라, 화순온천 주차장에서 출발 시 1인당 7,000원, 이서커뮤니티센터나 적벽초소 입구에서 출발할 경우 5,000원이다.

예약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별도 사전 예약은 받지 않는다. 단, 관광객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조기 매진될 수 있어 이른 시간 방문이 권장된다. 첫 셔틀버스는 10시에 출발하며, 9시 30분부터 현장 매표를 진행한다. 운행 시

간표에 따라 각 탑승지는 30~4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편리하게 주요 적벽 포인트까지 연결된다.

■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하는 '화순적벽 투어버스'

체계적인 관람과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에게는 화순적벽 투어버스가 제격이다.

투어버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만 운영되며, *화순읍 이용대체육관(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에서 출발한다.

투어 시간은 약 3시간으로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닌 깊이 있는 문화체험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1인당 10,000원이며,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탑승일 기준 2주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하며, 사전 예약 없이는 탑승할 수 없다.

투어 당일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예: 시간당 10mm 이상의 강수) 차량 운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 금액은 전



액 환불된다.

2024년 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재단의 전략적인 기획력과 홍보, 체계적인 운영으로 순수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셔틀 이용객 수는 무려 40% 이상 급증하며, 적벽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화순적벽은 이제 단순한 명소가 아닌 화순 관광의 상징이자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2025년에는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화순적벽이 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농기계 교통사고 줄이고, 대봉감 농사도 뒷받침하고

영암군 농기계 임대 동부사업소 9월 운영 목표 신축공사 준공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고, 지역 특산물인 대봉감 농사를 뒷받침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신축에 들어간 '영암군 농기계 임대 동부사업소'의 기초토목공사 단계가 한창이다.

영암군은 올해 9월 운영을 목표로 신축 중인 이 사업소가 금정면, 신북면 등 영암 동부지역의 농사 일손을 크게 덜어주고, 지역 간 영농 서비스 격차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 신규사업소 설치' 공모에 선정돼 국비 포함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동부사업소 신축에 들어가 지난달 27일 건물 착공에 들어갔다.

금정면 와우리 부지에 연면적 619㎡ 규모로 농기계 보관창고 및 정비동, 사무동 등으로 구성된 사업소를 만든다.

지금까지 영암 동부권 농업인들은 임대사업소 덕진본점에서 농기계를 빌려가는 과정에서 급커브·급경사 구

간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방도 제819호선을 경유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도로 통행 시 저속 운행해야 했고, 넓은 차폭이 필요한 농기계의 특성상 접촉·전복사고의 위험도 뒤따랐다.

영암군은 동부사업소 운영으로 이런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고, 동부 지역 농업에 실질한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해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영암 동부권의 영농 현실에 맞춤형 목재파쇄기, 승용예초기 등 약 20종, 150여 대의 농기계를 배치·운영한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암 동부권 농업인의 안전사고 위험을 덜고, 권역 특성에 맞는 농기계 임대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소 신축공사로 인한 불편을 조금만 참아 주길 바란다. 동부권 농업인의 숙원을 풀고, 영농 경쟁력 강화 뒷받침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나주시보건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흡연 예방 인형극'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흡연 예방 인형극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흡연 폐해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나주시보건소, '미취학 아동 흡연 예방 인형극' 큰 호응

흡연의 위해성 '백설공주와 마녀' 이야기로 재구성

흡연 예방 인형극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내용을 미취학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백설공주와 마녀' 이야기로 재구성해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코믹 마술, 금연 약속, 체험 활동 등 미취학 아동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 인형극은 어린이집·유치원 50개소

에서 미취학 아동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은 "흡연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흡연 예방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미취학 아동들이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성군은 21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정인화 광양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김철우 군수는 광양시에, 정인화 시장은 보성군에 각각 고향사랑기부를 진행해 두 지자체 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확대하고, 총 96개 품목의 답례품을 준비해 기부자들에게

김철우 보성군수-정인화 광양시장,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기대

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성군의 대표 특산품인 녹차, 꼬막, 녹돈 등이 인기 답례품으로 손꼽히며, 보성의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보성군소년소녀합창단 지원, 경로당 이

용 어르신을 위한 실버요리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를 넘어 지역 특산품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상호 기부가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좋은 선례가 돼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다양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성/김은기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8일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영산강 수역에 우량 뱀장어 종자 6,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된 뱀장어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매입해 무안군에 지원한 종자이다. 군은 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해 뱀장어, 메기,

무안군, 영산강에 뱀장어 종자 6천 마리 방류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종자 지원

동남참게, 쏘가리, 동자게, 자라 등 다양한 어종을 영산강 수역에 추가 방류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용석 민물고기연구소장은 "무안군의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속적인 연구로 수산자원 조성

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동식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방류가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군 계곡

장성군 농업인단체 "황룡강에 꽃 글씨 썼어요"

21일 '장성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플라워 레터링'

장성군 농업인단체들이 21일 '장성 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황룡강 일원에서 '플라워 레터링' 행사를 가졌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에이치)연합회, 귀농귀촌인협의회 4개 단체 회원 200여 명은 제2황룡교부터 문화대교까지 이어지는 17개 구간에서 메리골드, 데이지 등 6만여 주를 식재했다.

기존 식재행사와 달리, 글씨 모양으로 꽃을 심는 '플라워 레터링'을 도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회원들은 꽃이 피어났을 때 '장성 방문의 해', '성장장성' 등의 문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식재 작업에 정성을 들였다.

현장을 찾아 일손을 거든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업인단체 여러분의 손길로 조

성된 '플라워 레터링'이 '장성 방문의 해'의 성공과 황룡강의 아름다운 조경 완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관광택시, 스탬프투어, 버스킹 등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연중 운영하는 '장성 방문의 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오는 10~11일에는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도 개최한다. '장성 방문의 해' 프로그램 참여 및 관광 안내에 대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검색하면 된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